†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이중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다음 주 미사 독서: 강후길 프란치스코, 이승환 안드레아
금주 미사 복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다음 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금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 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정연희 가브리엘라, 강동현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2 구역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98
교무금: $ 80
감사헌금: $1,000 (익명)

합계 : $ 1,278

봉헌봉사: 최고은 소피아
다음주 봉헌봉사: 권민호 바오로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묵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가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6 월 28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7 월 5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아침 (Tumbledown Trails, 시간:페이스북 클럽 참고)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오늘의 묵상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럼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 꽤 알겠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나?" "모르겠는걸." "돌아가실 때 나이는?" "모르겠네." "설교는 몇 차례나 하셨나?" "몰라."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군!" 친구의 연이은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난 사실 아는 게 너무 적어 부끄럽네. 하지만 3 년 전 나는 주정뱅이에다가 많은 빚을 지고 있었지.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네.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고 빚도 다 갚았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귀가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릴 정도라네. 우리 집은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었네. 이게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네. 이만큼은 나도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 알고 있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로 여기는지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잘 알고, 또 아는 만큼 대답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탄도 예수님을 두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였습니다(마르 1,24; 루카 4,34 참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에 대하여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메시아이신 그분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위장
이중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클럽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연중 제 12 주일 **2013 년 6 월 22 일**

<제 1 독서> 즈카르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8-24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16 봉헌: 217 성체: 151 파견: 202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세례를 받은 지 일 년 정도 지난 신자들의 피정모임이 있었습니다. 생활 나눔 중 어느 신자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세례성사를 받고 신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없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그전보다 내 삶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의식도 못하고 지나갔던 행동들이 심한 죄책감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만큼 죄를 조심하게 되었고, 신앙의 삶이 어려워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자기 결단이며, 삶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마지막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버리기도 목숨처럼 아깝지만,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기만족이나, 위선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 등은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늘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한 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침도 주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세상 속에서 고통과 수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당장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어리석은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합시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이라고 말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공지사항

1. 견진 성사 안내
   일시: 2013 년 7 월 20 일 (토) 5 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2. 견진 교육 일정 (총 2 회)
   일시: 1 차 – 7 월 6 일 (토요일) 저녁 7 시
   2 차 – 7 월 13 일 (토요일) 저녁 7 시
   장소: 사제관 (409 N. Eau Claire #102, Madison)
   견진 성사 신청 하신 분들은 교육 시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자 입교식
   7 월 27 일 토요일 미사 중

   예비자 교리 첫모임
   7 월 27 일 토요일 저녁 7 시, 사제관
4.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여러분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 시부터 2 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운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여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셔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ī921@gmaī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īdwīnahan@gmaī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ī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5 월 31 일 (금) 저녁 8 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해설 -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형

십자가형에 처해진 성 안드레아는 마지막 순간에도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을 희망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성 안드레아를 비춥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힌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